

1. 무대팀 업무

1.1 공연진 모집 과정

무대팀 업무는 크게 무대 디자인, 사전 제작, 설치, 상주, 철거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준비 과정은 주로 계획을 세우는 일 위주로 진행되고, 공연 직전에 제작과 설치 등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을 꾸리기 전, 위와 같은 내용을 팀원들에게 (특히 공연 경험이 없거나 무대팀이 처음인 공연진의 경우 더더욱) 반드시 공지 후, 공연 직전 제작과 설치 과정에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대략적으로 준비 과정에는 주 1회 1~2시간 정도의 온/오프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일의 진행과 팀원들의 소속감 유지, 적극적인 참여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을 훨씬 추천함), 공연 직전 주에 사전 제작을 위한 하루 통째로 (설치에 비해서는 모든 팀원이 완전한 하루를 비우지 않더라도 릴레이 또는 교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긴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적어도 반나절은 투자 해야함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함), 공연장 대관 날짜의 첫날과 둘째 날 무대 설치를 위한 하루 통째로 (설치 당일은 경우에 따라 밤을 세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꼭 사전 공지하여 부모님의 허락 등을 이유로 안되는 팀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것) 정도의 시간이 가능한 팀원들을 받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무대팀의 인원수는 팀장이 감당 가능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10명 정도가 적당할 듯 싶습니다. 너무 적으면 설치 당일 손이 모자라 다른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너무 많으면 책임감 분산으로 준비과정에서 디자인 확정에 모두의 의견을 넣어 회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 무대 디자인 회의

무대팀이 모두 꾸려졌다면 이후 무대팀장의 업무는 회의를 통해 무대 디자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첫 회의에는 팀원들에게 대략적인 무대팀 스케줄표를 안내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때 회식을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가능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날로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첫 회의 이전 혹은 첫 회의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팀원들에게 숙제로 대본을 읽어올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대본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을 따로 듣거나 설명한다고 한들 이것저것 고려하여 디자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첫 회의까지 혹은 두 번

째 회의까지 모두가 대본을 읽어오게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출/캐스트가 장면 연습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되도록 연습 참관에 많이 참여하며 시연회, 철야 연습 등을 이용해 무대 동선을 파악하고 중간중간 키스텝 회의나 따로 시간을 내어 연출과 상의하며 무대 동선, 연출이 원하는 분위기나 대도구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출이 가능하다면 후반부 디자인 회의에는 연출에게 참석해달라고 부탁해 함께 한두 번 정도 진행하며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대본을 숙지하게 하면서는 대본을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와 무대 레퍼런스를 찾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레퍼런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할 지에 대해서도 레퍼런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대본의 이전 다른 팀들의 무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무대가 아닌 설치미술, 전시 작품 등 등 형태에 구매 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찾으면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레퍼런스를 통한 각자의 아이디어 공유가 끝났다면 여러 생각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에는 정교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단히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이때 레퍼런스와 함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나중에 제작 가능한 지 그 방법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처음 공연을 하는 신입 부원들의 경우 어느 정도 까지가 가능한 스케일인지를 짐작하지 못해 과도하게 화려한 무대를 그려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무대팀 예산과 재료, 인력,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올 수 있도록 창의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말해주면 이후 팀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리젝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확정 전까지 무대팀 회의에서는 매번 아이디어 스케치를 구체화시켜가며 디벨롭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확정 전의 한두 번 회의에서는 연출을 참여시켜 의견공유와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게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 매주 있는 키스텝 회의를 통하여 무대팀과 연출진 사이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자칫하면 팀원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보다 연출이 시키는 대로만 디자인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습 참관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대 디자인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구체적인 제작을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팀원 한두명과 함께 동방 제반조사를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벽, 각목, 대도구 등의 개수와 치수를 파악하여 몇개를 어디에 어떻게 쓸 지를 확정하면 됩니다. 구매해야 하는 재료의 경우, 쿠팡, 네이버 쇼핑, 동대문 시장 등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배송 일자를 고려하여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다이소, 문구점, 철물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철물점은 혜화에 있는 동명전기철물에서 페인트, 목장갑, 붓, 철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3 사전제작

재료가 모두 준비된 후에는 미리 팀원들과 정해 시간을 비워 둔 사전제작일에 무대에 필요한 벽, 대도구 등을 제작하면 됩니다. 이때 주로 하는 일은 오프라인 재료구매, 벽 채색, 대도구 제작 및 시트지 바르기 등등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가서 설치 할 때에는 벽을 세우고 장식을 다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연장에서 페인트 등을 칠하느라 더럽히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과정은 이날 모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원들과 일과 시간을 분배하여 진행하면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무대 설치

공연장 대관일의 첫날에서 둘째 날에 무대팀이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모든 팀들 중에 무대팀이 가장 먼저 설치를 완료해야 그 뒤로 조명팀이 조명을 달고 캐스트와 오퍼팀이 리허설 및 뒤깍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빨리 무대 설치를 끝내줘야 다른 팀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설치날의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대팀 콜타임에 맞춰 30분 정도 이후에 용달을 통해 공연장으로 벽, 각목, 각종 대도구, 재료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콜타임에 도착하면 동방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학생회관 건물 밖으로 꺼내 놔야 합니다. 이후 용달이 도착하면 모든 재료들을 싣고 공연장으로 향해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용달은 미리 일해주 이전에 불러 놓는 것이 예약이 쉽고, 빛과 소금 용달 혹은 공유화물 <https://1800-9924.com/mobile/home> 에서 부르면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벽부터 세우면 됩니다. 벽을 세울 때는 연출에게 계속해서 오케이를 받으며 먼저 어느정도 위치에 세울지 들어보고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캐스트들의 등/퇴장 시 어느정도 까지가 객석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지를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모든 벽들의 위치를 정했으면 벽들을 세워 고정하면 됩니다. 벽을 세우는 방법은 각 벽의 뒷면에 날일자로 붙어있는 각목들과 벽 사이의 빈틈에 철사를 끼워 넣고 한바퀴 돌려 감아 고정 시킨 후, 철사의 반대편 끝을 공연장 천장의 파이프 등에 연결하면 됩니다. 벽들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봐주며 위치를 조절해야 하고, 벽들끼리 떨어지는 경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양 옆을 마찬가지로 각목의 틈새를 통해 함께 감아 묶어주면 됩니다. 모든 벽들을 천장에 매달아 고정시켰으면 바닥 부분에 각목으로 삼각형 형태로 지지대를 만들어 위아래로 모두 지지해주고, 이 지지대들은 바닥에 청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이후에는 캐스트들이 백스테이지에서 각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목들과 그 주변에 야광테이프를 붙일 것입니다. 벽을 설치하고 대도구를 어디에 둘지 계획한대로 두고 디자인에 따른 장식을 모두 설치하면 설치업무는 끝입니다. 간단해보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침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일 벽이 아니라 커튼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케이블 타이와 타카, 각목, 커튼 고리 등을 이용해 각목으로 만든 지지대에 타카로 천을 박거나 혹은 공연장에 존재하는

파이프에 케이블 타이를 일렬로 감고 케이블 타이들에 커튼 고리를 걸어 천을 매다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1.5 상주

공연 도중 혹은 리허설 도중 캐스트들이 연기하며 무대를 건드리다 보면 무대가 무너지거나 보수 공사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 설치가 끝나더라도 공연과 리허설날에 (공연장 대관의 모든 일자에) 팀원들이 시간을 나누어 매 시간 최소 한 명의 무대 팀원이 상주해 있으며 수리를 위해 대기하여야 합니다. 팀원들의 공연 관람 일장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나눌 수 있게끔 미리 회의 때에 상주 시간을 픽스해 두면 좋습니다.

1.6 철거

마지막 공연이 모두 끝나면 무대를 모두 철거한 후 다시 동방으로 가져다 놓은 후 회식에 합류하면 됩니다. 이때도 용달을 미리 불러 예약을 해 두면 되고, 다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대팀은 모두 참여하여 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연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동방에 다시 재료를 가져다 둘 때, 주말 공연인 경우 학생회관이 잠겨 있기 때문에 경비실에 연락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한 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나오거나, 학생회관 앞에 잠시 짐을 둔 후 월요일에 시간이 되는 팀원들끼리 와서 안에 들여다 놓아도 됩니다.

2. 업무 외의 것들

1.1 팀장의 역할

기본적으로 무대팀장의 역할은 연출진과 무대 팀원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소외되거나 노는 인원이 없도록 일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이 부족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종 디자인 픽스 시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인원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게 되어 잉여 인원이 생기고, 책임감이 분산되며 소속감이 떨어져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팀원이 있더라도 아예 묵살하지 말고 작은 포인트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주고, 최대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케치를 픽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오라고 할 때 지난 공연 무대의 예시 등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정해주어 팀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리젝해야 하는 스케치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팀원들끼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서로 만족하는 결과물을 냈더라도, 연출의 의도한 방향과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전의 아이디어를 갈아엎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출은 연출대로 생각하는 그림의 무대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하고, 무대팀은 무대팀대로 원하는 무대를 만들지 못하고 연출의 의견에만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에서 계속 연출의 의견을 전달하고 무대팀장 본인 뿐만 아니라 무대 팀원들이 연습 참관을 많이 가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스트의 연기를 봐야 동선에 대한 감이 오고 대도구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하여 무대를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스텝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무대팀이 생각하는 바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2 키스텝 회의

팀장이 되면 매주 팀 회의 외에도 키스텝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팀장이 직접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팀원 중 다른 사람 하나를 대신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키스텝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리인을 보내는 것보다 필참인 회의이니만큼 웬만하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스텝 회의 때는 매주 각 팀의 진행사항과 회의록 등을 공유하며 연출진 및 조명팀과 의소분 팀과도 의견 공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명팀과 함께 상의하여 연출해야 하는 무대 장치가 있을 수 있고, 의소분 팀과는 어디까지의 대도구를 무대팀이 담당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무대 장식을 의소분 팀이 준비할 것인지를 픽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연에서는 오로라를 표현하기 위해 무대팀이 실커튼을 설치하고, 조명팀이 거기에 색조명을 쏘는 방식으로 제작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조명팀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오로라를 달 것인지 미리 확인했으며 바닥에 흩뿌려지는 눈 표현을 의소분 팀에서 담당하는 것을 사전에 확실히 해 진행했습니다.

연출진과의 상의는 가장 중요하게 무대 공간을 실 내/외로 나눌 것인지, 한 공간에서 대도구로만 공간의 차이를 표현할 것인지, 무대 좌/우를 나누어 다른 공간을 표현할지 등등을 연출진과 합의하여 팀원들에게 전달해 디자인을 픽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무대의 상/하수의 캐스트 입/퇴장과 대도구 이동을 백스테이지 어디에 두고 진행할 예정인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디자인하면 후에 수정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 다음 공연의 무대팀장님께

극회에 앞으로도 무대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대팀만을 고집하는 팀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공연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셔서 무대팀원들에게 이후에도 계속 공연하고 싶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팀장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며, 극회 공연의 무대팀장이 되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

니다. 이후에도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능한 한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진 화아탕~~

~~다음 공연 꼭 유튜브 라이브 송출해주세요 그게 유럽의 몇 시든 챙겨 볼게~~